

#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치자

## IMF체제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일

김경희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우리 사회가 이 시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게 한다. 1947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당시 미·영·중·소 4대국의 3년간 신탁통치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국은 둘로 갈라지지 않을 수 없었고, 세계에서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민족상잔을 벌여 아직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그후 남과 북은 체제경쟁을 벌여 나름의 성과들을 자랑해왔으나 북은 백성들을 먹이지조차 하지 못해 많은 주민이 아사하면서 국제적인 구걸행각으로 그날그날을 연명하고 있다. 남은 여러차례의 권위주의 정권의 연속으로 자유권을 제한당하면서도 한때 600억불 남짓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했으나 하루아침에 국가부도 직전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남이나 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

세계는 지금 거대한 굽이를 돌고 있다. 세기(世紀)가 바뀌고 천년기(千年紀)가 바뀌는 물리적 변화만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으로 지구 자체가 생멸(生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중심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룸하여 경제전쟁, 과학기술전쟁, 문화전쟁이 그것이며, 이는 지구 전체로 벌어지고 있기에 세계화(世界化) 또는 국제화(Globalization)라는 구호로, 한편으론 지구 구석구석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지방화(Localization)로도 불리고 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강대국에게 털미를 잡히고 말았다. 그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잘못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것이며, 모르는 사이에 외양간의 소를 놓아 버린 것이다.

허술한 외양간의 간수, 코뚜레와 고삐와 울타리를 송아지 수준에서 멈추어 놓고 있었다. 우리의 소는 이미 어미소였다. 우리는 정확히 말해 자신을 몰랐다. 자기를 안다는 것(知己)은 바로 남을 안다는 것(知彼)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의 인식 능력은 낮았고 자신과 남을 제대로 몰랐기에 자만했으며, 사치하고 낭비했고 너무도 무리했다. 그리고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용렬한 지도자를 선택한 것도 우리요, 무책임한 공·사의 관리자를 믿은 것도 우리요, 재벌들의 터무니 없는 탐욕을 제지하지 못한 것도 우리요, 그들에게 대안을 내놓는 데 게으른 것도 우리 학계를 포함한 교육이요, 언론이요, 출판이었다.

문화는 자존심이다. 몇 백억의 흑자관리도 못하는 능력의 한계는 안팎의 7천만 우리 겨레에게 더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말았다.

이제라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곱씹어야 한다. 수치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무지(無知)와 무식(無識)에서 온 것임을 알고 실사구시(實事求是)에 투철하자. 교육과 언론 그리고 출판은 우리 몸에 맞는 '한국형 세계문화 발전전략'을 세워 경제전쟁, 과학기술전쟁, 문화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슬기의 외양간, 지적 능력의 외양간'을 고치자. ❖

신년 특집 2 **“새로운 출판운동의 실천에 힘 모아야”**  
출판계 4인의 긴급 진단 (김종수/이중환/허창성/홍지웅)

6 **‘고전의 지혜’로 새해를 밝힌다**  
올 한해의 출판흐름 전망

8 **우리 출판사 새해 구상**  
창작과비평가/문학과지성사/민음사/강/한울/  
동문선/리브로/개마고원/나남출판/김영사/  
석필/소나무/세계사/학고재/예영커뮤니케이션/  
보림/산하/푸른숲/지호/솔

리뷰 18 **순간의 기록 담은 사진의 세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살펴본 사진이론서들

나의 학문과 책읽기 20 **‘영어’를 다리 삼아 건넌 문학의 강** - 나영균  
학생시절 꿈을 심어주었던 책들

주제가 있는 책읽기 22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현대사회** - 홍성태  
노동개념의 ‘변화’를 읽는 몇가지 시각

출판계 소식 7 **제4회 독서대상 대통령상에 김득순 교사·외**

서평 24 **한영우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 - 유성원  
**한국기호학회 《삶과 기호》** - 김옥동  
25 **차옥송 《한국인의 종교체험, 무교》** - 조홍윤  
26 **최종욱 외 《보수주의자들》** - 현택수  
**이도원 《떠도는 생태학》** - 이승환  
27 **통 《병리학의 역사》** - 이종찬

이 책 그 사람 28 **《한눈팔기와 글쓰기》** 펴낸 김화영씨  
**《만득이의 물리퀴신 따라잡기》** 펴낸 이공주복씨  
29 **《정도전을 위한 변명》** 펴낸 조유식씨  
**《그래, 나는 바다에 미쳤다》** 펴낸 강동석씨

30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다시 보는 사진집 ①**

표지/호랑이 문양 (안그래픽스 제공)  
그래픽 디자인 · 윤정자

# 謹賀新年

애독자와 출판인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8년 새해

(재)한국출판금고 임직원 일동